

역경극복의 길



김수홍 상명대/교수

K형! 그동안 연락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전과 다름없이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맥내 두루 평안하시지요. 저는 요즘 학기말이 되어 시험문제 출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평가, 그리고 기말시험 채점 및 성적 평가결과 처리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게 매년 12월이 되면 항상 치르는 일이 2가지 있습니다. 마치 연례행사가 돼 버린 그런 일 들 입니다. 그 중 하나는 안면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계의 선후배 인사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하여 4학년 졸업생들을 취업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일 년에 한번, 연말에는 꼭 만나보는 대학 동창생 4명의 가족 모임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IMF 직후부터, 형도 잘 알고 있는 그 대학 동창생 중 한명이 가족과 헤어져서 외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그 가족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친구가 참석치 못해도 가족 모임을 꼭 제가 술선하여 소집하여 다시

약력 : •77~79 미국 록허드사 •79~81 삼성전자 컴퓨터부 •81~86 한림대학교 법인 전산실 •86~92 국제전산 •현재 상명대학교 교수

우리의 우정의 강을 흘러가게 해볼 심산입니다.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그 친구는 요즘은 연락이 끊겨있습니다. 형이 이번 해외출장을 그곳으로 가신다기에, 가시는 길에 그 친구를 꼭 만나서, 제가 전하는 중국의 고전인 채근담(菜根譚)의 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K형! 진나라 때의 양호라는 장수는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7~8할 이나 있다.” 라고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사람에게는 7~8할이 아니라 10할 까지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인(忍), 즉 “참는 것” 이라고 채근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에는 험준한 길을 견디어야하며 눈길을 갈 때에는 위험한 다리를 극복하며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 견딘다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인정은 험하고 인생의 길은 순탄치가 않다. 참음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곧 가시덤불 속에서 길을 잃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아무튼 참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며 살아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인생이 참기만 해야 한다면 아무 재미도 없겠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참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K형! 중국에는 예전부터 행과 불행은 서로 맞물려 돈다는 순환사상이 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불행하지만 머지않아 행복이 찾아 올 것이니, 자기 자신을 그런 희망의 암시로 타이르면서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압니다. 이와 같이 앞날에 희망을 가진 인내라면 그것은 참는 보람이 있겠지요. 반대로 지금은 순탄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함정에 빠질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순조로운 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만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채근담도 이러한 순환 사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리막의 징후는 가장 번성할 때에 나타나며 새로운 성장의 태동(胎動)은 바로 번성한 가운데서 일어난다. 순조로울 때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변에 대비해야 하고,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목적 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시련을 주는가 싶으면 이내 곧 영달을 보증하고, 영달을 보증하는가 싶으면 곧 시련을 준다. 이에 내노라고 하는 영웅들도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역경에 처했어도 순순히 따르고, 평은 무사한 때에도 비상시에 대비하기를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도 어떻게 손을 써보지 못하는 것이다.”

K형! 오랜 인생을 살자면 누구에게나 운이 찾아오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역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는 것이 제일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시기야말로 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용비를 준비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이나 빈곤은 인간을 단단하게 단련시키려는 용광로와 망치와 같은 것이니, 이 속에서 단련되면 심신이

모두 강건해진다. 담금질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크지 못한다.” 고 강조하면서 채근담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이 좋은 약이 되고 절조와 행실도 모르는 사이에 연마되어 간다. 순조로운 때에는 눈앞의 것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녹이고 뼈가 깎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K형! 비록 우리가 역경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태연하게 대처하는 여유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역경에 처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첫째 마음까지 위축되고 마는 일인 거 같습니다. 둘째로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일, 셋째가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경에서 헤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에는 침착한 마음으로 힘을 비축하면서 기회를 기다린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채근담에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웅크리고 힘을 비축한 새는 일단 날게 되면 반드시 높이 오른다. 다른 꽃보다 일찍 핀 꽃은 먼저 시들어 버린다. 이런 도리만 분별할 수 있다면 도중에서 발을 헛디딜 염려도 없고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굴어 안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K형!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짐으로 긴 인생의 완주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 친구에게 이 채근담의 교훈을 전해주시어, 용기와 인내로 시련을 극복하고 어서 하루 빨리 우리의 곁에서 왕성한 활동을 재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제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닥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2월

안서동산에서 후배 올림